

#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분석)-도비시한 연준 태도에도 불안한 투자자들..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 ◇ (초점)-3% 깨진 물가, 일회성 요인 사라져도 하향 안정 어려운 이유
  - ◇ (초점)-긴급 바이백에 FOMC 파고 넘었지만..채권시장 안정 갈 길 먼 이유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mailto: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mailto: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코로나로 제한했던 여행객 방문을 허용하고 있다. 사진은 태국이 해외 여행객 입국을 허용한 뒤 처음 공항에 도착한 여행객들 모습이다. (로이터/카이틀린 옥스 기자)

##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11월5일 종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1,185.2	-1.4%	-8.3%	+6.5%	유로	1.1566	0.0%	-5.3%	+8.9%
100엔 대비	1,041.2	-1.1%	1.0%	+1.1%	엔	113.40	0.5%	-8.9%	+5.2%
유로 대비	1,366.0	-0.6%	-2.9%	-2.3%	위안	6.3980	-0.1%	2.0%	+6.7%
위안 대비	184.54	-0.7%	-9.9%	-0.3%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다우존스	36,327.95	1.4%	18.7%	+7.2%
코스피	2,969.27	0.0%	3.3%	+30.8%	나스닥	15,971.59	3.1%	23.9%	+43.6%
코스닥	1,001.35	0.9%	3.4%	+44.6%	S&P500	4,697.53	2.0%	25.1%	+16.3%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MSCI APxJP	645.43	-0.3%	-2.5%	+19.8%
국고채 3Y	1.944%	-15.9bp	96.8bp	-38.4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국고채 5Y	2.166%	-23.9bp	83.1bp	-14.5bp	미국채 2Y	0.405%	-9.6bp	28.4bp	-144.0bp
국고채 10Y	2.350%	-22.5bp	63.7bp	+3.0bp	미국채 10Y	1.455%	-10.6bp	54.3bp	-99.8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0(%)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0(bp)
유가(WTI)	81.27	-2.8%	67.5%	-20.5%	한국 5Y	19.0bp	0.3bp	-3.0bp	+0.1bp
금(현물)	1,816.73	1.9%	-4.2%	+25.0%	일본 5Y	17.6bp	-0.9bp	2.6bp	-4.5bp
TR상품지수	3,232.74	-1.3%	20.6%	+7.8%	중국 5Y	49.8bp	3.7bp	21.7bp	-3.6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11 월 8 일(월)>

- 기재부 장관·차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14:00)

### <9 일(화)>

- KDI 현안분석 '코로나 위기가 초래한 고용구조 변화와 향후 전망'(12:00)

### <10 일(수)>

- 산업부, 한-미 상무장관 회담 개최
- 산업부, APEC 외교·통상장관, 아시아·태평양 지역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한 공동선언문 합의
- 금감원, 10 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06:00)
- 통계청, 10 월 고용동향(08:00)
- 한은, 10 월중 금융시장 동향(12:00)
- 한은, 10 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12:00)

### <11 일(목)>

- 관세청, 11 월 1-10 일 수출입 잠정치
- 산업부, 장관급 한미 에너지협의체 출범 공동성명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 KDI 경제전망(12:00)
- 한은, 9 월중 통화 및 유동성(12:00)
- 금감원, 9 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12:00)
- 한은, 경제동향간담회 개최

### <12 일(금)>

- 한은, 10 월 수출입물가지수(06:00)
- 기재부, 11 월 최근 경제동향(10:00)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11 월 8 일(월)>

- BOJ, 10 월 27-28 일 통화정책회의 주요 의견 발표 (08:50)
- 일본 10 월 외환보유고 (08:50)
- 일본 9 월 경기 동행·선행지수 (14:00)
- 유로존 11 월 섹터지수 (18:30)
-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23:00)
- 미국 10 월 고용추이 (자정)

### <9 일(화)>

- 일본 10 월 은행대출 (08:50)
- 일본 9 월 경상수지 (08:50)
- 노르웨이 중앙은행, 금융안정보고서 발행 (18:00)
- 미국 10 월 NFIB 기업낙관지수 (20:00)
- 미국 10 월 PPI (22:30)

### <10 일(수)>

- 뉴욕 연방은행 3 분기 가계 부채·신용 보고서 발행 (01:00)
- 일본 11 월 로이더단칸 제조업·서비스업 지수 (08:00)
- 중국 10 월 CPI·PPI (10:3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1:00)
- 미국 10 월 CPI (22:30)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2:30)
- 미국 9 월 도매재고 수정치·도매판매 (자정)

### <11 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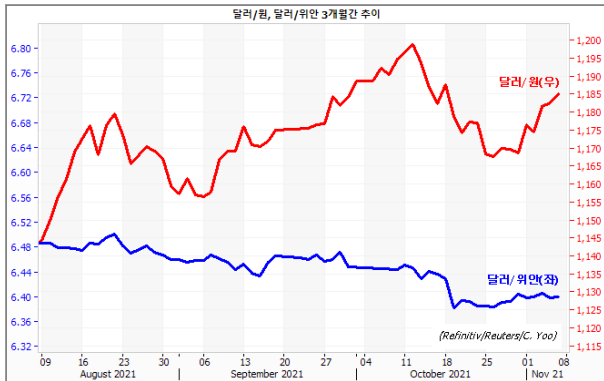
- 미국 10 월 연방예산 (04:00)
- 일본 10 월 기업상품가격지수 (08:50)
- 미국 채권시장 휴장

### <12 일(금)>

- 유로존 9 월 산업생산 (19:00)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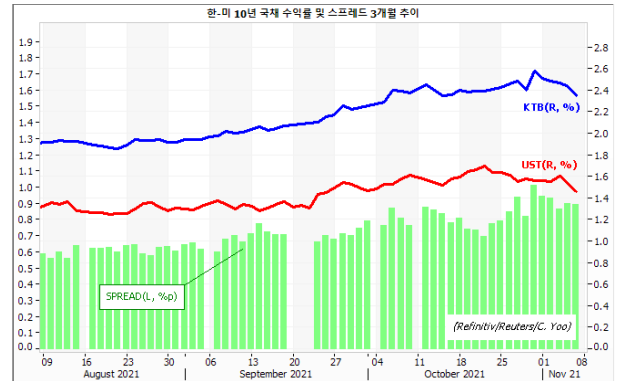
## <외환시장>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글로벌 달러 움직임을 주로 따르면서도, 최근 거래 범위를 크게 이탈하지는 못할 전망이다.
- 예상 주간 환율 범위는 1170-1195 원이다.
- 인플레이션이 주요 쟁점으로 자리잡은 가운데 주요국 통화정책은 긴축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나, 긴축 속도와 강도에 대한 미묘한 차이 속에서 글로벌 달러의 움직임은 한층 산만해졌다.
- 그렇다 보니 달러/원 환율은 최근 박스권 장세를 유지하면서 그때그때 시장 분위기를 따라 등락하고 있다.
- 이런 흐름은 이번 주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대외 훈풍에도 무덤덤한 국내 증시 상황과 비디시한 수급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달러/원 하방 경직성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주 주목되는 대외 지표는 미국과 중국의 10월 물가지표다. 물론, 주요국 통화 당국의 견해 표명이 있었던 만큼 이에 따른 시장 반응은 이전보다는 덜 예민할 가능성도 있다.
- 한편, 연말로 갈수록 수급이 심리를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가 활발한 가운데 이와 관련한 수급 변수가 시장 분위기를 바꿔놓을지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

## <채권시장>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 시장 전망은 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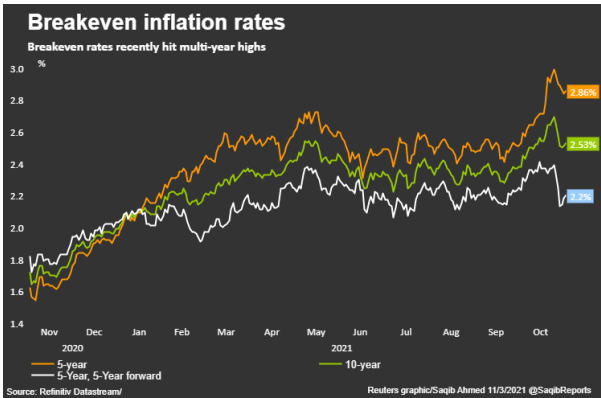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분석)-도비시한 연준 태도에도 불안한 투자자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뉴욕, 11월 04일 (로이터) -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테이퍼링을 발표했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향후 변동성에 대비해 리스크를 줄일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연준은 3일(현지시간) 이달부터 월간 채권 매입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밝혔으나 인플레이션 상승이 '일시적'이며 이른 금리 인상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투자자들은 이를 '도비시한 테이퍼링'으로 받아들였다.

연준의 정책 발표 이후 시장의 즉각적인 반응은 크지 않았지만, 투자자들은 이렇게 차분한 시장 상황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손버그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의 론 에릭슨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강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사람들은 조금 더 초조해질 것이다. 이때 투자자들은 리스크 익스포저를 축소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 이 같은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인플레이션 상승 지속에 따른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해 채권 중에서는 듀레이션이 상대적으로 짧은 자산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은 S&P500 지수를 작년 3월 저점에서 두 배 이상 끌어올리는 등 팬데믹 동안 금융시장을 지탱한 주요 원천이었다. 그러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자산 가치가 과도하게 상승하고, 주식과 같은 리스크 자산 투자가 급증했다는 우려도 커졌다.

FS 인베스트먼트의 트로이 게이츠키 수석 시장 전략가는 “이렇게 금융 여건이 느슨하고, 경제가 잘 작동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을 때, 통화정책을 위기상황 모드로 운용하는 것은 위험한 게임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인플레이션 헤지 상품에 투자하고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듀레이션이 긴 미국 국채 등의 투자는 피할 것을 조언했다.

인디펜던트어드바이저얼라이언스의 크리스 자카렐리 최고 투자책임자는 향후 12개월 동안 인플레이션과 금리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주식 익스포저를 유지하지만, 대차대조표 및 가격 결정력이 강한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투기 성격을 띠는 기업

들에 대한 투자는 멀리하는 것이 신중한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코너스톤웰스의 클리프 호지 최고 투자책임자는 “도비시한 테이퍼링” 환경에서 변동성은 작고 퀄리티가 좋은 자산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바클레이즈의 토드 산도즈 글로벌 주식 공동 헤드는 주식시장의 경우 기업들의 실적 성장세가 명목 금리 상승과 어떻게 균형을 이룰지가 핵심 사안이 될 것이라며 “기대 인플레이션과 명목 금리 상승세가 실적 성장세를 크게 앞지를 경우, 주식시장은 정말 부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국채 시장은 연준이 지난 2013년과 달리 테이퍼링 신호를 계속 보내왔는데도 인플레이션 급등에 따른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 전망이 강화되면서 단기 금리가 오르고 수익률 곡선이 평평해지는 등 최근 몇 주간 요동쳤다.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3일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며 내년 두 차례의 금리 인상을 계속 반영했다.

한편,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투자 환경이 긍정적이라고 전망하는 이들도 있다.

크레셋웰스어드바이저스의 잭 에블린 최고 투자책임자는 이번 정책회의 후 파월 의장의 발언은 안심 이 된다고 “경제는 연준의 통화 정책 긴축 전환을 견뎌낼 만큼 강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초점)-3% 깨진 물가, 일회성 요인 사라져도 하향 안정 어려운 이유**

서울, 11월 2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소비자물가의 고공행진은 언제까지 이어질까?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9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3.2%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을 기록하면서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높은 헤드라인 수치의 지속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은 1년 전 통신비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와 한국전력의 전기세 인상 영향까지 반영해야 하는 만큼 소비자물가가 단기적으로 튀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이미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기저효과가

사라진 이후에도 물가 상승 압력이 쉽게 해소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도 커지고 있다.

### ▲9년 9개월 최고..

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97(2015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 상승했다. 이는 2012년 1월 3.3%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012년 2월 3.0%를 기록한 이후 10여년간 3%대 위로 올라온 적도 없다.

두 가지 특이요인이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리는 데 일조했다.

하나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상황에서 전 국민에게 이동통신 요금을 할인해 준 데 따른 기저효과다.

이 영향으로 10월 휴대전화료가 25.5% 오르면서 공공서비스 가격이 5.4% 상승했다. 공공서비스의 물가 기여도가 0.69%p인데 이 중 0.67%p가 통신비였던 만큼 휴대전화료 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이 컸던 것이다.

10월부터 한국전력의 전기요금이 인상된 것 역시 물가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 영향으로 전기료는 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달에는 10월 소비자물가를 0.67%p 끌어올린 통신비 할인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만큼 10월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 나타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이달 12일부터 정부가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한 것 역시 소비자물가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33%p 끌어내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다만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개별 주유소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재고도 소진시켜야 하는 만큼 11월 물가에 유류세 인하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전망이다.

### ▲일회성 요인 사라져도 물가 하방 안정 어려운 이유

다만 일회성 요인이 사라진다고 해도 소비자물가가 현 수준에서 큰 폭으로 떨어지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국제유가 상승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수입물가가 요동치고 있어 석유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난방용 에너지 수요와 공급 간 괴리가 커질 수 있는 만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현재 배럴당 8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두바이유 가격이 일부 전망대로 100달러대까지 상승할 경우 3%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또 한 번 보는 건 시간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이달부터 '워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10월 소비자물가 지표에서도 가공식품과 외식비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수요측 물가 압력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통계청이 12월부터 개편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 통계 역시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물가 조사 품목과 가중치가 조정되면서 단기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0.3%p 가량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3%대 물가가 지속될지 아닐지 말하기는 어렵다"며 "10월의 일시적인 요인을 배제한다고 해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요측 물가 압력도 커질 수 있겠지만 그런 완만하게 반영될 듯하다"고 말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10월보다 높진 않겠지만 당장 일회성 요인이 사라졌다고 큰 폭으로 떨어지기도 어려워 보인다"며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가공식품이나 외식가격도 오르는 등 수요측 물가 압력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 유가가 80달러대에서 안정화되면 당분간 2% 후반대에서 조금씩 낮아지는 흐름이 나타날

것 같다"며 "유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워낙 커 예측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가 물가 상승률이 당장 낮아질 것으로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 차관은 2 일 차관회의에서 기저효과가 사라지지만, "국제유가 오름세, 농축수산물·개인서비스 기저효과 등 상방요인도 상존해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 **[초점]-긴급 바이백에 FOMC 파고 넘었지만..채권 시장 안정 갈 길 먼 이유**

서울, 11 월 04 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원화 채권 금리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운용역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긴급 바이백 조치를 내놓으며 급속한 시장금리 상승에 제동을 건 데다 테이퍼링 이슈로 관심을 끌었던 미국의 11 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자료도 무난히 넘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변동성 해소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의 질서 있는 정상화'에 대한 한국은행의 커뮤니케이션과 시장의 기대 수준이 크게 어긋나면서 '기준금리 대비 적정금리' 논의가 묻혀 버린 게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화당국이 포워드 가이드는 주지 않으면서 예상보다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빠를 수 있다는 뉴앙스의 시그널을 반복적으로 시장에 내놓은 통에 채권을 사려고 접근했던 기관들이 모두 큰 손실을 봤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기관들의 매입 여력에 한계가 드러나는 가운데 이번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의 최종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니 시장금리 상단이 뚫려버린 것이다.

보통 기준금리 정책 기조의 전환 시기에 시장이 무질서한 흐름을 보일 때는 통화당국이 나서 교통정리를 해주기 마련인데 올해는 한은의 방치 속에 변동폭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에선 호주중앙은행(RBA)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최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인 행보를 국내 통화당국과 대비하기도 한다.

RBA 와 연준 모두 인플레이션 억제, 과도한 유동성의 회수라는 같은 정책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언제나 한 발 더 나가려는 시장의 과도한 기대감을 제어하며 가격 발작을 최소화하려는 커뮤니케이션을 이어온 반면, 국내 통화당국은 급격한 시장금리 상승을 오히려 유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A 외국계 은행 트레이딩 헤드는 "국내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이 세련되지 못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것"이라며 "파월 의장의 경우 내년엔 기준금리를 어차피 올리겠지만, 왜 굳이 지금 이야기하냐, 지금은 테이퍼링만 이야기하자며 시장 변동성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했지만, 한은은 금리 인상의 일관성에만 너무 초점을 맞췄다"고 지적했다.

B 증권사 채권본부장은 "다른 중앙은행들도 자산가격 우려를 하겠지만 갑자기 유동성을 줄이겠다고 나서면 다 죽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 만큼 시장을 달래면서 가려고 하는 것"이라며 "채권시장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닌데 현재 국내 통화당국의 스탠스는 채권 하는 사람들이 다 책임지라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화당국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릴 테니 대비하라고 하는데 이게 채권시장에 이야기하는 건지, 부동산시장에 이야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며 "현재 시장금리가 과도하다는 걸 알지만 통화당국의 스탠스가 이러면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의 최종 수준이 어디인지, 현재의 시장금리가 통화정책 정상화를 과도하게 반영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통화당국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기대하고 있다.

물론 이들은 통화당국이 질서 있는 정상화라는 기존의 방침을 확인하면서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식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한다. 그 반대는 아니다.

C 증권사 채권본부장은 "원래는 시장이 무질서하게 움직이면 중앙은행이 중심을 잡고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중앙은행이 촉발한 무질서"라

며 "한은이 도대체 왜 이럴까에 대한 의구심을 시장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상황이 풀리려면 통화당국이 어느 정도 달래주는 게 있어야 할 듯하다"며 "시장의 기대가 기준금리 인상을 너무 많이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언급 정도는 할 수 있는 상황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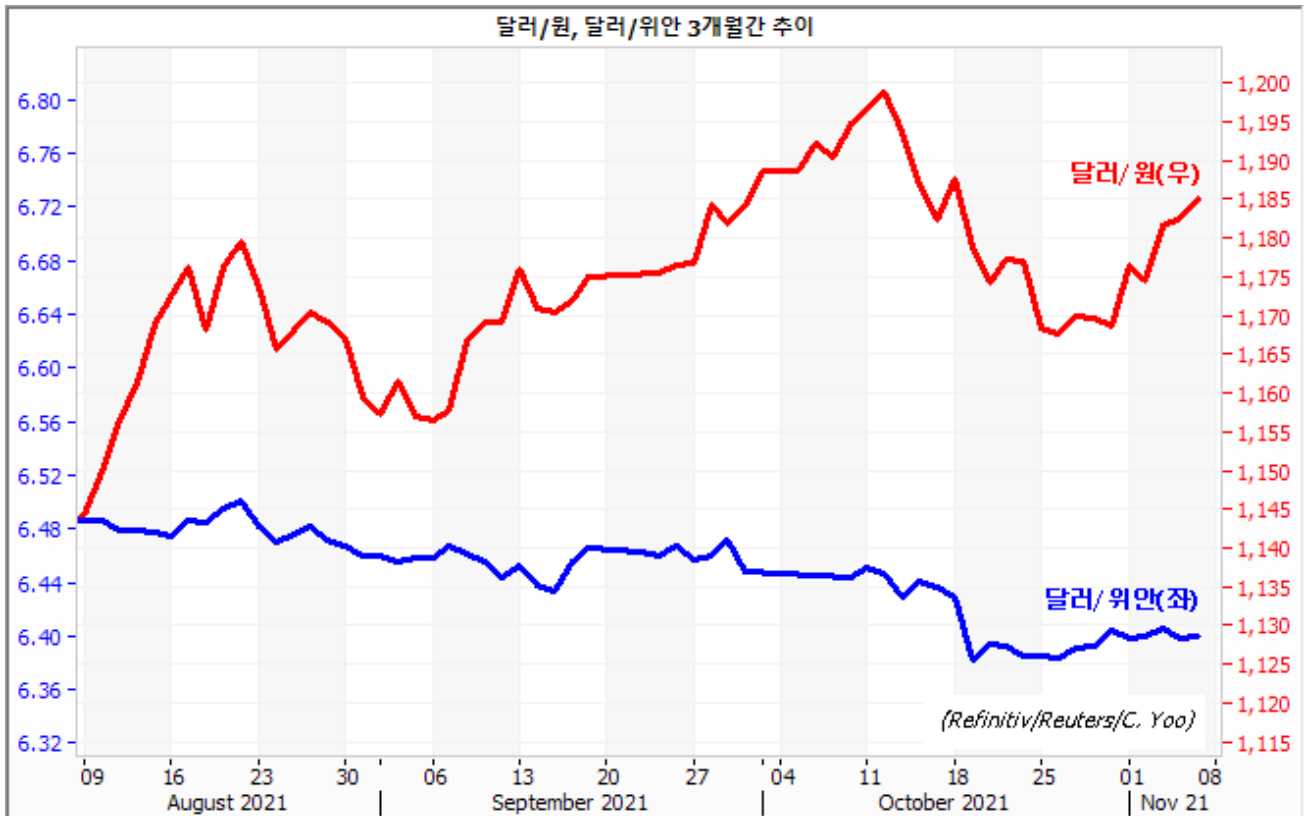
D 국내 은행 운용부장은 "정부가 한 주 동안 4 조원의 국고채를 매수해주는 건 유례없는 조치로 수급상 굉장한 호재"라면서도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에 대한 한은 총재의 분명한 설명이 없다면 결국 외국인이 국채선물을 매도했을 때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PHOT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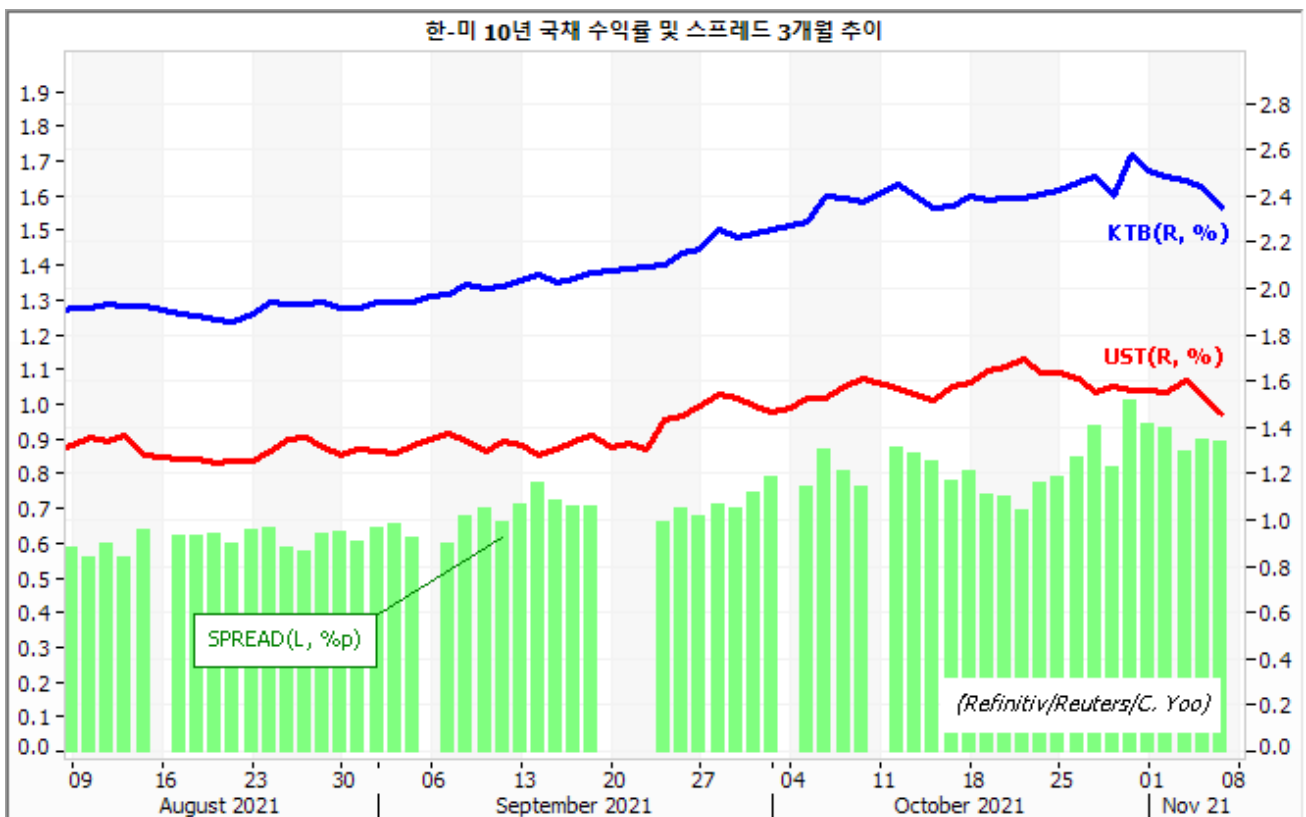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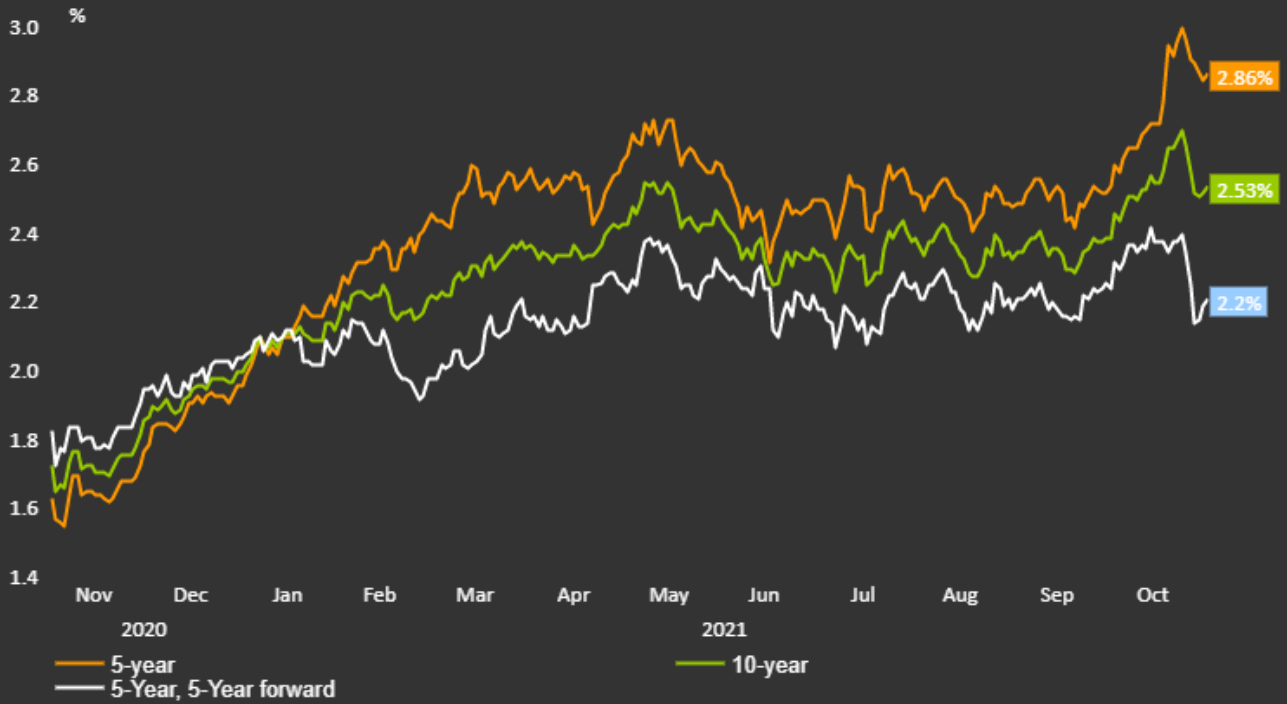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 Breakeven inflation rates

Breakeven rates recently hit multi-year highs



Source: Refinitiv Datastream/

Reuters graphic/Saqib Ahmed 11/3/2021 @SaqibReport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